

10월 릴레이 가을축제 주민들 ‘즐거운 비명’

9일 용호부두 **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12일 이기대 갈맷길 **2019 아시아 걷기총회**

19~20일 평화공원 **제23회 오륙도평화축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10월, 남구에서 축제가 연이어 개최된다. 10월 9일 용호부두에서 열리는 2030 부산 월드컵 유치 기원 가요콘서트를 시작으로 12일 세계적인 걷기 페스티벌인 2019 아시아 걷기 총회(Asia Trails Conference)가 이기대 일원에서 열린다. 이어 부산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23회 오륙도평화축제가 19~20일 유엔기념공원 옆 평화공원에서 펼쳐진다.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성인가요 전문 케이블 아이벡TV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이웃과 함께하는 T콘서트’가 10월 9일(수) 18:30부터 용호부두에서 무료로 열린다. 용호부두가 주민에게 처음 개방하는 행사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김승현의 사회로 윤항기, 정수라, 성진

우 등 80~90년대를 품미한 추억의 인기가수들의 대거 출연한다.

2019 아시아 걷기 총회 부산

‘2019 아시아 걷기 총회(Asia Trails Conference) 부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아시아워킹페스티벌이 10월 12일(토) 09:00~14:00 천혜의 풍광을 가진 이기대 해안길에서 열린다. 코스는 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상부체육공원을 출발해 동생말~어울마당~전망대~큰고개쉼터~용호중대~오륙도스카이워크~백운포체육공원 8.6km, 이날 11개국 34개 단체의 관계자들과 일반시민 등 3,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참여는 별도 신청 없이 오전 9시까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상부체육공원으로 오면 된다. 이기대 걷기 행사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이기대가 국내를



이기대해안산책로가 2019년 아시아걷기총회(ATC) 대표코스로 선정돼 오는 10월 12일 11개국 관계자와 부산시민이 걷기축제를 가진다.

넘어 세계적인 걷기 코스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이번 아시아워킹페스티벌은 제36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제23회 오륙도평화축제

10월 축제의 대미는 부산의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잡은 오륙도평화축제가 맡는다. 10월 19~20일 평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세계평화특구 남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Peace of Wave(평화의 물결)’를 주제로 자유, 평화, 화합 3대 콘텐츠 27개 프로

그램이 마련된다. 사흘간 열리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축제 기간이 이틀로 하루 줄었지만 내실은 더욱 풍성하고 응골차졌다.

이번 축제에 처음 도입되는 ‘미디어 파사드’는 특설무대에 마련된 스크린에 조명을 투사해 관람객을 압도하는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개막식(19일 오후 6시) 때 공연장 위로 남구가 제작하는 연극 ‘소막마실 가는 날’ 소품인 소를 형상화한 ‘오토마타(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 퍼포먼스도 준비된다.

관객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과 축제 기간 메인무대 앞 잔디밭에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에어배드, 타프 등을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개막식 때 국내 최고의 보컬리스트 김경호와 히든싱어에서 김건모를 모창해 폭발적 인기를 끈 나건필이 무대에서 열창한다.

한편 오륙도평화축제와 연계해 평화공원 중앙광장 일원에서 국화전시회(10월 18일~11월 11일)도 함께 열린다. ☎607-4062



평화공원에 설치된 오륙도평화축제 캐릭터.

‘구인·구직 등용문’ 남구일자리박람회 초만원

구직자 2,000여명 참여... 45개 기업 면접·채용

첫 사회적경제기업 알리미 페스티벌도 성료

2019년 남구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9월 27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구직자 2,000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박람회에는 직접 참가기업 25개, 간접 참가기업 20개 등 총45개 기업이 참여했다. 메인 행사인 채용면접관은 경비 및 환경미화 기업을 중심으로 원스톱 현장 채용면접을 가졌다. 간접 참여하는 업체 부산에도 많은 참여자가 몰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난을 반영했다.

이날 구청 광장에서는 2019남구 사회적경제기업 알리미 페스티벌도 함께

열렸다. 남구청에서 처음 시도한 이번 행사는 기업 홍보와 제품의 판로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육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 11곳과 협동조합 9곳 등 총 2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현장 제품판매 및 홍보, 체험 등의 행사를 가졌다.

부대행사로 사회적기업 연구원과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유관기관이 참가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정 및 상품 판매 등의 판로개척에 대한 컨설팅도 가졌다.



지난 9월 27일 남구청에서 열린 남구일자리박람회(사진 위)와 사회적경제기업 알리미페스티벌.

지지부진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남구 주민 뿔났다

추진위원회 결성 정부·부산시에 조속 추진 촉구



지지부진한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9월 3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병열)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황병열 위원장은 “우암·감만 주민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해왔다”며 “지역의 숙원 사업인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체 없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부산시에 정상 추진을 요구했다.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가 2023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자해 우암부두 지역에 해양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해 마린 비즈니스 R&D 센터, 지식산업센터, 친환경 스마트 선박 R&D 플랫폼 등 해양 연관 산업을 유지하는 국가사업이다. 2017년 연말 유흥항인 우암부두가 사업지로 확정되었지만 이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륙도스카이워크가 도색 및 방청작업으로 10월 4일까지 개방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을 길에 묻은 까닭은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2곳 설치

스마트폰 보며 걷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목적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걷는 이른바 ‘스몸비’ 주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남구가 최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동래구에서 시범운영한 적은 있지만 올해 경찰청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수립한 이후 정식 설치한 곳은 부산에서 남구가 처음이다.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장소

는 대연사거리 베스킨라빈스 앞(수영로 230)과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입구 부근(용호로 50) 어린이보호구역 2곳 내 횡단보도이다. 횡단보도 입구 보행자 통로 바닥에 LED 전구 신호등을 매립해 보행자가 발밑에서 신호등의 변화와 색깔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남구는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사고 예방 효과를 지켜본 뒤 관내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유경제로 주차난 해결한다

11월부터 주거지전용 주차장 공유사업... 주차요금 70% 배정자 지급

남구가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주차문제 해결에 나선다.

남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10일 주차공유업 개발업체인 ㈜모두컴퍼니와 업무협약을 가졌다. 사업은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공유사업은 스마트폰 앱인 ‘모두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거지전용 주차공간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가 필요한 운전자와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신종 사업이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앱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배정자가 미사용 시간을 사전등록하고, 주차를 원하는 사람이 시간과 주차장 위치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로 임대료와 소액결제 후 이용하게 된다. 주차요금은 30분당 300원이며 주차공간을 제공한 배정자는 주차요금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아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번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으로 지역 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주정차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07-4555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월 28일~11월 1일 실시

· 참여기관 : 남구청, 남부경찰서, 부산진·남부소방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남구지역자활방재단, 재난관리자원 협약업체 등

우리가 몰랐던 신선대	4면
카페의 거물 ‘매그네이트’	5면
남구가 달려온 44년	7면
시대를 앞선 남구 공무원	11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